

“자신과 싸움…올림픽 금메달 주역되겠다”

동구청 복상단 김호섭·이행석·유기현·황정환

올해 첫 경기서 ‘은메달 2’
고강도 체력훈련·정신 단련
“남은 경기 좋은 성적낼 것”

“복상은 링 안에서 스스로와 싸우는 종목입니다. 상대를 이기겠다는 마음보다 지난 경기에서의 나보다 성장한 선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다 보면 어느새 최종 목표까지 도달해 있을거라 자신합니다.”

“2023 대한복싱협회장배 복싱대회”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한 광주 동구복상단 김호섭·이행석·유기현·황정환 선수는 매 경기를 임하기 전 이같이 승리를 향한 의지를 다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체력 훈련을 하며 치열한 하루를 반복한다.

또 체급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식이 조절로 엄격하게 자신을 단련한다. 경기를 마친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이들의 얼굴에는 멍과 작은 상처들이 가득했다.

올해 첫 경기부터 은메달 2개를 획득한 이들은 피나는 노력을 쏟은 만큼 성

취감보다 아쉬움을 드러내며 다음 경기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주장이자 만형으로 노련함이 돋보이는 김호섭 선수(31·60kg급)는 동료 선수들의 체력 훈련뿐만 아니라 멘탈 케어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김 선수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중요한데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선수들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경기에 대해서 “항상 1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동구복상단의 저력을 알릴 수 있었다”며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1등을 해서 팀에 금메달을 안겨 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에서 최종 1위에 올랐던 이행석 선수(24·56kg급)는 아파서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를 가장 힘든 순간으로 꼽았다.

이 선수는 “훈련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다. 다만 부상 등으로 인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면 불안함이 엄습해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다”며 “오롯이 목표를 생각하며 버틴다. 올해 말에 예정된 대표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



왼쪽부터 황정환·김호섭·이행석·유기현

올림픽 금메달에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고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장점인 유기현 선수(28·69kg급)는 “복상은 링 안에서 스스로와 싸우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낀다. 의지를 저버리지 않고 경기를 끝까지 이끌어갔을 때 성취감을 느낀다”며 “‘이 순간의 패배가 최후의 패배는 아니다’는 말을 가슴에 새겼다. 작은 실패에 흔들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막내 황정환 선수(20·52kg급)는 “첫 실업팀인만큼 ‘지난달의 나보다 강해지자’는 마음으로 기본기를 다지는데 충실하고 있다”며 “올해는 부상 없이 전국체전 메달 입

상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패기 넘치게 말했다.

신명훈 동구복상단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는 금메달을 놓쳐 아쉽지만 올해 출전하게 될 6번의 경기 중 첫 시작이 좋아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다”며 “체력 단련과 근력 운동에 중점을 두고 재정비해 올해 남은 경기와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수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6년 해체된 동구복상단은 2020년 1월 재창단됐다. 출범 1년 만에 단일 전국대회 전원 메달을 달성한 가운데 최근까지 금메달 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9개를 획득했다. /김혜린 기자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는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에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를 돕기 위한 성금 466만 원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광주 사랑의열매 2층 나눔문화관에서 진행된 전달식은 양고승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김광원 부위원장, 박용표 사무국장, 김진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고승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좋은 일에 뜻을 함께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도 조선대학교직원노동조합에서 뜻깊은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이재민들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주신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에 감사하다”며 “조속하게 피해복구가 마무리돼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열매는 오는 31일까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특별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민찬기 기자

권윤구 전남대 교수, 1천만원 발전기금

전남대는 권윤구 조경학과 교수(사진)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권 교수는 “모교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올해로 전남대 조경학과가 설립 40주년을 맞는 특별한 시점에 기부하게 돼 기쁘고 학과 발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학과 이기열 학과장은 “기부금은 조경학과 재학생들의 전공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권 교수는 2007년 전남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2020년부터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공간 통계모델링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이 가지는 정체성과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빛고을50+센터, 광주아이키움 지원단 발대

광주 빛고을50+센터(센터장 정찬기)는 20일 ‘만편한 광주아이키움 지원단’ 참여자 20명에 대한 기본소양 교육과 발대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아동 등 영유아 대상 생애 전화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육교사들의 휴식·점심시간·휴가권 보장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및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단은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기타 보육 관련 자격 구비자 중 우수한 능력을

갖춘 시민을 선발했으며, 배치 전 전문강사에 의해 소양교육을 가진 후 배치를 요청한 어린이집에 지원했다.

정찬기 빛고을50+센터장은 “지원단이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가 현장 중심 지도와 격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며 “2차 모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빛고을50+센터(062-228-5050)나 센터 포털(gj50plus.or.kr)로 하면 된다. /길용현 기자

장선경 간호사, ‘미래선도 간호사상’

화산전남대학교병원은 의료질관리실 장선경 간호사(사진)가 병원간호사회에서 제정한 ‘제2회 미래선도 간호사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간호사는 최근 병원간호사회가 주최한 ‘제48회 정기 대의원 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간호 전문성을 갖추고 간호사 위상에 기여한 10명으로 선정돼 이 상을 받았다.

특히 장 간호사는 의료기관 질 향상과 인증기준이 상시 준수될 수 있도록 다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 긍정적인 리더십



을 통한 조직문화 발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간호사는 “모든 부서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담당하며 항상 어깨가 무겁지만, 팀원들 덕분에 즐겁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병원 동료들과 소통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고병일 광주은행장, 고향사랑기부 동참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이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응원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

고 은행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동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릴레이에 동참했다.

앞서 고 은행장은 지난 3일 임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에 참여, “기부로 나누고 답례로 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나부터 참여해 홍보하고 적극 전파하자”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고 은행장은 실제 광주·전남 지자체 26곳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광주은행 임원들도 총 1,700만원을 기부했다.

고 은행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인사

전남대학교 ▲연구부총장 민정준(의학과) ▲연구처장 하준석(화학공학부) ▲글로벌대의협력처장 국민석(치의학과) ▲교학부총장 김은일 ▲여수부총장 박복제

전매게시판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내실곳 jndn@chol.com

알림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기본반 3개월(토/12회) 성인병 예방·치료, 가족주치의. 문의 뜸사랑 광주교육원 062-521-3999, 010-4642-4779.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무료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10-8602-0001.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정신건강·자살위기사상담전화 1577-0199.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 학대 24시간 상담진행 학대피해노인전용

상담운영. 1577-1389.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미혼으로 임신해 무료 산전 후 진료·분만 혜택과 상담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가능 080-733-1313, 222-9349.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 5시 무료상담 654-3802.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니코틴·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상담=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오늘의 날씨

일출 06:36 월출 06:27
일몰 18:44 월몰 18:14

광주

9~23

나주

6~23

목포

8~19

순천

8~20

광양

9~19

여수

10~16

목포

만조 01:40 14:18
간조 07:04 19:34

여수

만조 09:11 21:20
간조 02:38 15:10

장성	6~23	영암	6~21	완도	10~17
담양	6~24	진도	8~18	강진	7~19
화순	6~23	신안	8~21	장흥	7~19
영광	6~21	흑산도	8~13	해남	7~19
함평	7~22	구례	6~23	고흥	7~16
무안	7~21	곡성	5~23	보성	6~18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